



농업경영성공사례발표회 농촌진흥청장상 수상

오만균(한국양봉협회이사)



고자 (사)전국 농학계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협의회에서 주최하고 농림수산물부, 농협중앙회에서 후원하여 실시한 전국 규모의 발표회로 약 700여명이 참석하고 총 38명이 경쟁하여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였다.

건강식품으로서 꿀에 대한 진위여부와 품질저하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다국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FTA, DDA 등 양봉농가들이 값싼 수입 벌꿀에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이 될 수

지난 2008년 7월 25일 전국 농학계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협의회에서 개최한 「농업경영성공사례발표회」에서 한국양봉협회 오만균 이사는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 3월 충북대학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양봉반에 입학하였으며, 충북대학교를 대표하여 축산분야에 「고품질 다수확 벌꿀 생산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성공사례발표회는 농업경영으로 성공한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고 품목별 생산, 유통, 정보교류를 통하여 농업, 농촌발전에 기여하

있도록 벌꿀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자연건강식품으로서 믿음이 가는 친환경적 고품질 양봉산물을 생산하는 방안이 인정받았다.

오만균 이사는 충북 괴산군 불정면에 ‘현암양봉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35년째 양봉업에 종사하며 현재 350군을 사육하고 있다. 바쁜 농가일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충북대학교 대학원 농생물학과 응용곤충학에 진학하여 고품질 벌꿀생산 방법에 대한 연구로 2008년 8월 석사학위를 받았다.